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15-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태도와 일상생활 회복

2021. 2. 3.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lee.sy@hrc.co.kr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주요 결과

-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 때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학교, 직장, 여가생활은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사회 모든 영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코로나19에 정신없이 당하기만 했던 2020년이 지나고, 인류는 백신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리고 과연 접종이 마무리 된 이후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1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일상생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정부의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준비에 대해 묻은 결과, 49%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보다(55%) 낮은 수치였다
-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67%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4%)보다 높았으나 작년 7월(87%) 이후 접종의향이 20%포인트 감소했다.
- 선호하는 백신과 백신 선택권에 대해 묻은 결과, 제조사별로 백신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백신 제조사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응답(41%)과 지정해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42%)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연령대가 높을수록 백신 신뢰도가 높고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며, 전 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신 신뢰도가 낮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을 하고 싶으며, 그마저도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 6개월 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은 70%, 1년 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은 90%로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0%, 30%대로 낮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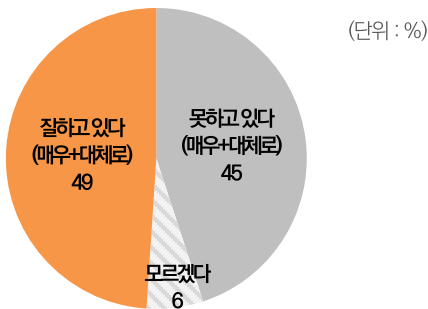
정부의 예방접종 준비 평가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준비, 잘하고 있다 49%

백신 도입 시기가 늦었고, 백신 정보 공개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도 40%

정부의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준비에 대해 묻은 결과, 4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시점의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55%)보다 낮은 수치이다. 코로나19 방역보다 예방접종 준비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접종 시기와 정보 공개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백신 도입 결정은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또한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 역시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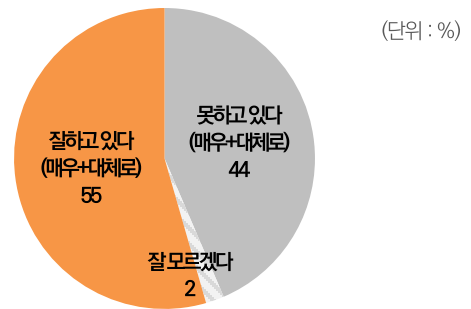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준비 잘하고 있다는 응답(49%), 대통령과 정부 코로나19 대응(55%)보다 부정적



질문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준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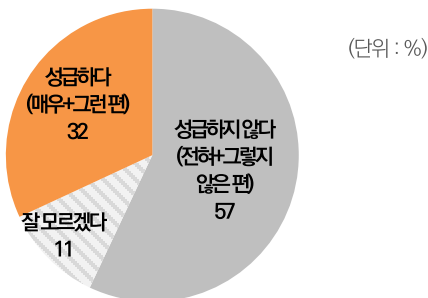


질문 :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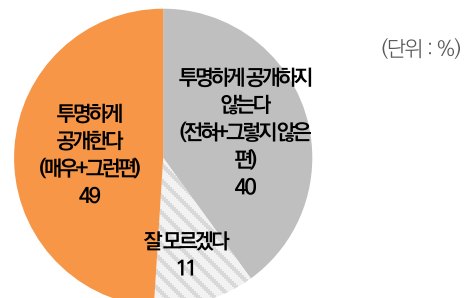
백신 도입 성급하다 32%만 동의, 백신 정보 공개 투명하지 않다 40%



질문 : 현재 정부의 백신 도입 결정은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질문 :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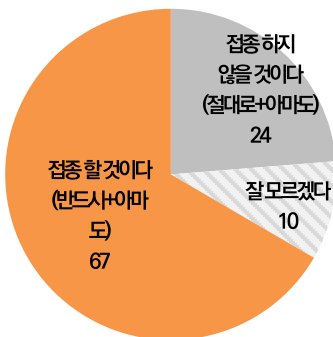
2 예방접종 의향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응답 67%, 작년 7월 이후 하락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67%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4%)보다 높았다. 특히 여자(62%)보다는 남자(71%)가,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51%, 60세 이상 79%)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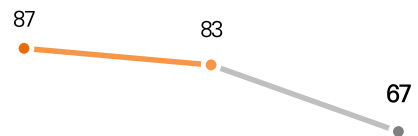
다만,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리서치가 작년 7월 31일 ~ 8월 3일 진행한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6145>)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7%가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작년 11월 27일 ~ 30일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25>)에서는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83%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는 67%까지 떨어졌다. 다섯 달 만에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20%포인트 하락한 것인데, 특히 20대는 82%에서 51%로, 30대는 83%에서 53%로 30%포인트나 떨어져 하락폭이 특히 컸다.

예방접종을 한다는 응답, 67%



예방접종 의향, 작년 7월 이후 하락세

(단위 : %)



접종을 할 것이다 (반드시+아마도)	2020년 7월	2020년 11월	2021년 1월
전체	87	83	67
성별			
남자	86	84	71
여자	87	81	62
연령			
18-29세	82	74	51
30-39세	83	82	53
40-49세	86	81	66
50-59세	86	89	75
60세 이상	93	86	79

질문: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비고: 접종을 할 것이다(반드시+아마도) 응답

예방접종 7월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6145>), 11월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25>)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 7. 31 ~ 8. 3 / 2020. 11. 27 ~ 30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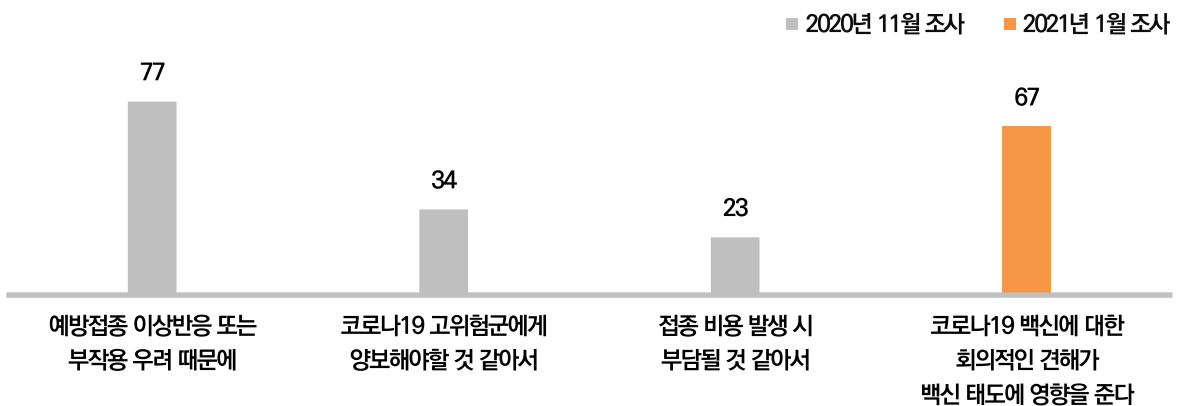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

백신 접종 의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27일 ~ 30일 조사에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혹은 부작용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이 77%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양보(34%)하거나, 접종 비용이 부담된다(23%)는 응답보다 높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사에서 매체를 통해 접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나의 백신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데에 67%가 동의하였다.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백신 부작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예방접종 의향을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수준

(단위 : %)



질문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1+2순위).
매체를 통해 접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나의 백신태도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비고 : 11월 조사(<https://hrcopinon.co.kr/archives/17025>)

응답자 수 : 11월 조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174명 / 1월 조사: 1,000명

조사기간 : 2020. 11. 27 ~ 30 / 2021. 1.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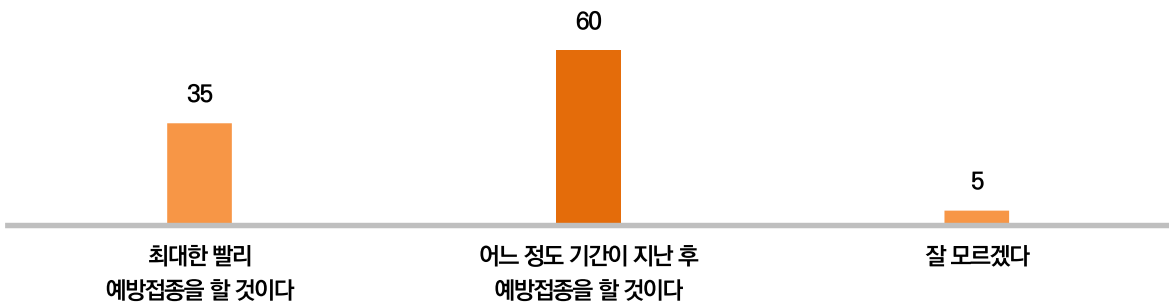
3 예방접종 시기 및 백신 신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 60%

백신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는 응답(60%)이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는 응답(35%)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덜한 40대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는 반면, 60세 이상은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51%로 높았다. 또한 여자(66%)가 남자(54%)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단위 :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 60%
반면, 60세 이상은 최대한 빨리 접종 51%



구분	사례수 (명)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864)	35	60	5	100
성별					
남자	(438)	42	54	4	100
여자	(425)	28	66	6	100
연령					
18-29세	(142)	25	68	7	100
30-39세	(127)	23	74	3	100
40-49세	(166)	24	70	6	100
50-59세	(176)	40	55	5	100
60세 이상	(253)	51	45	4	100

질문 :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응답자 수 : 접종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응답자 864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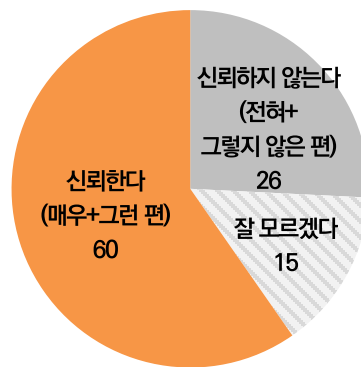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백신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하나(60%),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신뢰도에 차이 있어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연령대와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에서는 71%가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한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졌는데, 20대에서는 45%만이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또한 남자(64%)가 여자(55%)보다 백신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60%)
연령대가 높고 남자(64%)인 경우 신뢰도 높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①+② 신뢰하지 않는다	③ 신뢰하는 편이다	④ 매우 신뢰한다	③+④ 신뢰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	22	26	50	10	60	15	100
성별									
남자	(495)	4	19	23	52	12	64	13	100
여자	(505)	3	26	29	48	7	55	16	100
연령									
18-29세	(173)	8	31	40	37	8	45	15	100
30-39세	(156)	4	29	33	45	8	53	13	100
40-49세	(189)	2	26	28	49	7	57	15	100
50-59세	(197)	3	16	19	57	8	64	17	100
60세 이상	(285)	1	15	17	56	15	71	13	100

질문 :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신뢰한다.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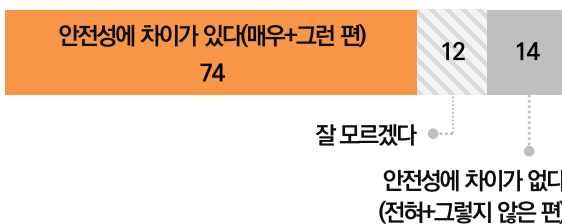
4 선호하는 백신과 백신 선택권

**백신 제조사별 효능 및 안전성에 차이가 있고(74%), 선호하는 백신 제조사 있어
다만, 백신 제조사 직접 선택(41%)과 지정해준 백신 접종(42%)에 큰 차이 없어**

백신 제조사별 효능 및 안전성을 살펴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별로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7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월 22일 ~ 25일 조사에서 제조사별 백신 선호도는 화이자 38%, 모더나 28%, 아스트라제네카 14% 등의 순이었다(특히 선호하는 제조사 없음 45%). 백신 제조사별로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조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백신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경우 선호하는 특정 백신 제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제조사별로 백신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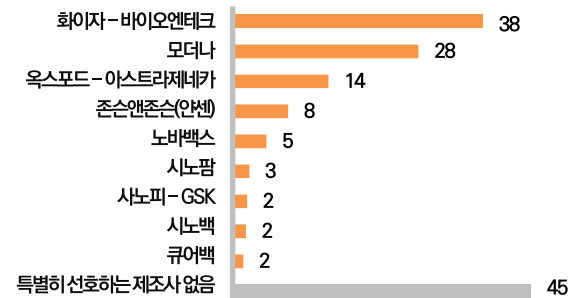


질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조사 별로
백신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선호하는 백신 제조사 있어



질문: 다음은 세계의 주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입니다.
이 중 선호하는 제조사가 있으신가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22 ~ 25

구분	사례수 (명)	화이자- 바이오 엔테크	모더나	옥스포드- 아스트라 제네카	존슨앤 존슨 (안센)	노바백스	시노팜	사노피-GSK	시노백	큐어백	기타	특별히 선호하는 제조사 없음
전체	(1,000)	38	28	14	8	5	3	2	2	2	0	45
연령												
18-29세	(173)	33	18	6	5	2	3	3	1	4	0	56
30-39세	(156)	31	22	12	5	1	1	3	2	1	0	53
40-49세	(189)	36	22	17	7	4	3	3	1	1	0	43
50-59세	(197)	38	31	20	9	8	3	2	4	1	0	45
60세 이상	(285)	46	39	15	12	8	2	1	2	1	1	35
백신 예방접종 의향												
할 것이다	(671)	42	34	17	9	7	3	3	3	2	0	39
하지 않을 것이다	(203)	29	18	10	8	3	3	1	1	2	0	53
잘 모르겠다	(126)	28	15	7	4	2	0	1	0	0	1	65

질문: 다음은 세계의 주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입니다. 이 중 선호하는 제조사가 있으신가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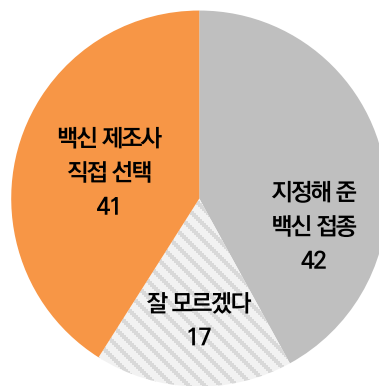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1. 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백신 제조사별 신뢰도에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제조사가 있으나 내가 맞을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다는 응답(41%)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혹은 방역당국이 지정해 준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응답(42%)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30대(51%)는 백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 백신 안전성에 민감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각 제조사별 백신 도입 시점이 다르고, 보건 당국은 개인이 맞고 싶은 백신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은 전 국민 대상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연시킬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전략보다는, 접종 초기에 백신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단위 : %)

**백신 제조사 직접 선택(41%)과 지정해준 백신 접종(42%)에 큰 차이 없어
다만, 30대에서 백신 제조사 직접 선택하겠다는 응답 높아(51%)**



구분	사례수 (명)	내가 맞을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혹은 방역당국이 지정해 준 백신을 맞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1	42	17	100
연령					
18~29세	(173)	44	42	14	100
30~39세	(156)	51	30	19	100
40~49세	(189)	42	44	13	100
50~59세	(197)	39	42	20	100
60세 이상	(285)	35	48	17	100

질문 :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백신 예방접종 선택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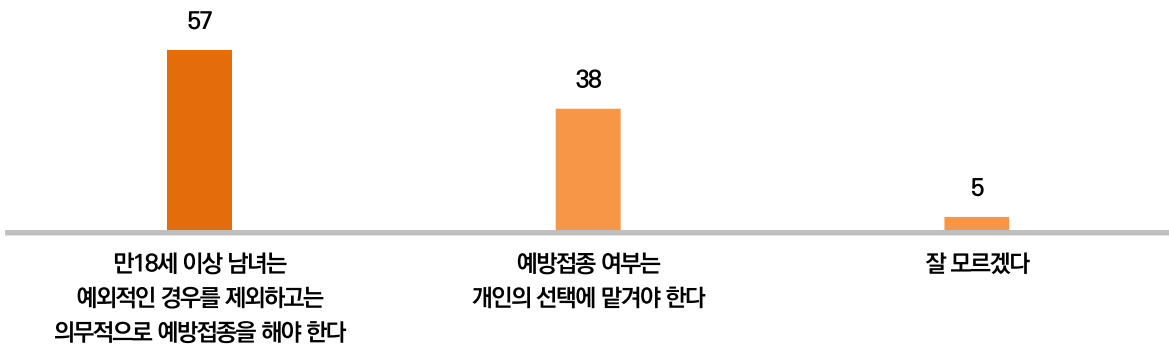
백신 전국민 의무접종 57%,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38%

만18세 이상 남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 38%보다 높았다. 이 역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60세 이상에서는 70%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43%, 30대에서는 49%만이 의무 접종에 동의했다. 종합하자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백신 신뢰도가 높고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며, 전 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신 신뢰도가 낮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접종을 하고 싶으며, 그마저도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위 : %)

백신 의무접종 해야 한다, 57%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무접종 해야 한다는 응답 높아



구분	사례수 (명)	만18세 이상 남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7	38	5	100
연령					
18~29세	(173)	43	48	9	100
30~39세	(156)	49	45	6	100
40~49세	(189)	51	43	6	100
50~59세	(197)	61	36	3	100
60세 이상	(285)	70	28	2	100

질문 : 예방접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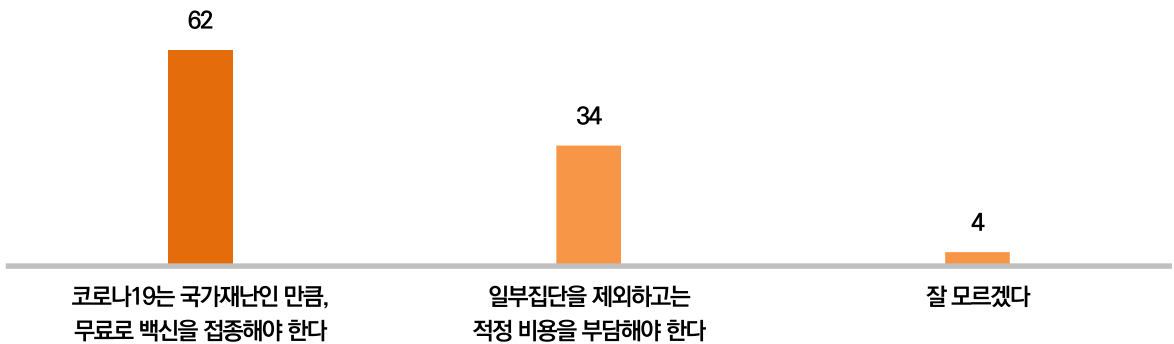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백신 무료접종 62%, 국민이 적정비용 부담 34%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이 62%,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백신을 맞는 사람이 적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무료 접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단위 : %)

백신 무료접종 해야 한다, 62%



질문 : 예방접종의 비용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 일상생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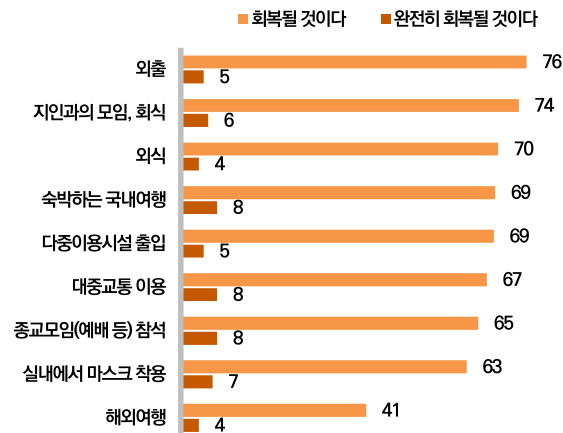
6개월 후 일상생활 회복 70%대, 1년 후 일상생활 회복 90%에 달해 다만,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접종 후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6개월 후의 일상생활 변화를 전망해 본 결과 외출, 지인과의 모임·회식, 외식 등 해외여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대로 높았다. 예방 접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의 일상생활 변화 전망 역시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데에 응답자의 90% 가량이 동의하였다.

다만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회복이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아니었다. 6개월 후 주요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년 후 주요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30%를 넘지 않았다.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최소 1년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단위 : %)

백신 예방접종 6개월 후 일상생활 회복, 70%대 완전한 회복은 10%에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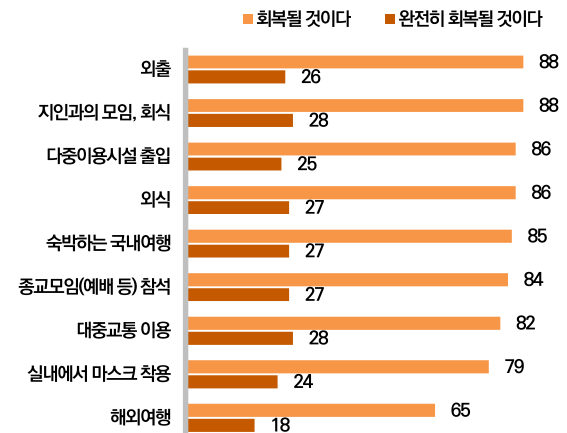


질문 :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7월 본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1년 후 일상생활 회복, 90%에 달해 완전한 회복은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



질문 :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본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백신은 분명 현재 상황을 개선시켜주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접종 대상에 유아 및 청소년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면역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녀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접종 의향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효과적인 접종 진행을 위한 방역당국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12월 기준 약 54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682명, 조사참여 1,23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0%, 참여대비 80.7%)
조사일시	• 2021년 1월 8일 ~ 1월 1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